■신당 경선 결과 오늘 발표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8개지역 동시 경선이 일제히 치러친 14일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후보 선거캠프는 마지막까지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며 사력을 다했다.

鄭 "이변은 없다" 孫 "대역전의 날"

후보들 투표 독려…서로 승리 장담

'버스떼기' 논란 등 막판까지 혼탁

후보 3인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15일 개표 결과를 기대하며 서로 승리를 장담했다. 이런 가운데 경선은 막판까지 불법, 부정선거 논란으로 얼룩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막판 투표 독려**=손, 정,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각각 자택 인근의 투표소로 나와 한표를 행사한 뒤 주로 자택에 머물며 시시각각 올라오는 투표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손 후보는 이날 오전 마포구청에서 부인 이윤영씨와 함께 나와 투표를 마쳤다. 이후 손 후보는 자택에 머물며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총력전을 벌였다.

정 후보는 이날 서대문구 홍은동 내 서대문구청 내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부인 민혜경씨와 함께 투표했다. 정 후보는 오전 홍은동 성당 미사에 참석한 뒤 자택에서 투표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이날 관악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끝까지 깨끗하게 최선을 다해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의 부인인 김정옥씨는 이날 투표소 현장에 투표안내문을 들고 갔으나 이름이 선거인단 명부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표를 행사하지 못했다.

◇**서로 승리 자신**=막판 양강구도를 형성한 손, 정 후보 측은 이날 서로 승리를 장담하는 판세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손 후보 측은 이날 정 후보의 텃밭인 전북에서 1만5천표 정도 뒤지지만 서울·인천·경북에서 1만5천표 이상을 얻어 상쇄가 가능하고, 여론조사와 3차 휴대전화 투표에서 정 후보에 1만표 이상 앞서 기존의 격차(1만여표)마저 해소, 4찬여표 차 승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 후보측은 인천, 대구, 경북이 열세이지만 전북 등에서 확실한 우위를 형성하고 있는데다 여론조사와 휴대전화 3차 투표에서도 박빙의 우위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2만표 이상의 표차로 손 후보를 누를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 후보 측도 막판 대역전극을 펼쳐 보이겠다며 결전의지를 다졌다.

◇**막판까지 불법선거 논란**=이날 손 후보측은 정 후보가 고향인 순창에서 '버스떼기'하는 것을 3건 적발했다고 주장하며 공세의 날을 세웠다. 손 후보 측 공보담당자는 "버스떼기 현장을 사진으로 다 찍어놨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도 정 후보 진영의 '택시떼기'를 주장하며 이에 가세했다. 이에 맞서 정 후보 측은 손 후보 측이 '3번 손학규를 찍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법으로 발송했다고 역공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 측 김형주 대변인은 13일 밤 서울 마포지역에서 정 후보 측 지지자들이 불법행위를 적발한 손 후보 측 관계자들과 선관위 직원들을 폭행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투표관리 대혼란**=경선관리 전반에 걸쳐 난맥상을 드러낸 신당은 막판 투표관리에서 또다시 중대한 허점을 드러냈다. 투표안내문이나 통지를 받고 투표현장에 나갔다가 선거인단 명부에서 이름이 누락돼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선거관리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4일 실시된 광주·전남 경선에서 1위를 차지, 민주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이인제 후보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표결과 발표 직후 김민석, 장 상 후보와 손을 맞잡고 흔들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

이인제, 민주 대선후보 사실상 확정

광주·전남 경선 1위

민주당 대선 경선 투표 누계 〈단위:명〉

후보	광주·전남 투표	누적득표
이인제	11,664(61.8%)	28,175(56.1%)
김민석	6,078(32.2%)	11,597(23.1%)
신국환	586(3.1%)	4,909(9.8%)
장 상	552(2.9%)	2,374(4.7%)

민주당 이인제 후보가 14일 실시된 마지막 순회경선인 광주·전남지역 경선에서 1위를 차지,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 후보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경선 결과발표에서 전체 유효투표 1만8천880표 중 1만1천664표(61.8%)를 획득, 6천78표(32.2%)를 얻은 김민석 후보를 5천586표차로 제쳤다.

신국환 후보는 586표(3.1%)를 얻어 3위를 기록했고, 장 상 후보는 552표(2.9%)로 4위에 그쳤다.

민주당은 이날 광주·전남 경선을 마지막으로 지역순회 경선일정을 마쳤으며, 이 후보는 10차례 지역경선 누적득표 결과 2만8천175표(56.1%)를 기록, 1만1천597표(23.1%)를 획득한 2위 김민석 후보와의 표차를 1만6천596표로 벌렸다.

신 후보와 장 후보는 각각 4천909표(9.8%)와 2천374표(4.7%)로 3, 4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이 후보는 16일 공개되는 여론조사 결과(9천600여표), 대의원 및 선거인단 누락자 우편투표(4천800여표) 등 남아있는 표수와 상관없이 민주당 경선의 최종 승자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7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광주·전남 경선 투표율은 광주 5.6%, 전남 10.3% 등 평균 8.1%에 그쳤다.

이는 그동안 실시된 다른 시·도 투표율은 물론 지난달 29일 대통합민주신당의 광주·전남 경선 투표율(22.6%) 보다도 낮은 수준이어서 경선 흥행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며, 그동안 되풀이해온 '텃밭' 주장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민주당은 당초 지역순회 선거인단 58만6284명 중 23만1337명으로 전체의 39.4%에 달하는 광주·전남 경선을 흥행으로 이끌어 향후 전개될 후보 단일화에서 우위를 점유한다는 전략이었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13일 치러진 경기·대전·충남·충북지역 경선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체 유효투표 6천701표 중 4천792전표(71.5%)를 획득, 982표(14.7%)를 얻은 김민석 후보를 3천810표 차로 크게 제쳤다.

이 후보는 광주·전남 개표 결과 발표 직후 "젖먹던 힘까지 다 바쳐 민주당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서부벨트를 하나로 묶고 당의 지역·계층적 지지기반을 확대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맞대결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단일화와 관련 "11월 중순까지 범개혁 진영의 후보단일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범여권 후보 단일화 급물살 타나

이명박 대항마 공감…성사 가능성 높아

기득권·총선 등 둘러싸고 진통 불가피

■신당·민주당 경선 종료

대통합 민주신당과 민주당의 국민경선이 15일과 16일 각각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범여권의 후보단일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보단일화는 범여권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범여권의 기득권 다툼으로 인한 상당한 진통도 예고되고 있다.

◇**후보단일화 대상·시기·방법**= 일단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 대선 후보, 다음달 4일 창당될 예정인 창조한국당(가칭)의 문국현 전 사장 등이 유력한 후보단일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중심당의 신국환 대표, 국민연대의 이수성 전 총리, 강운태 전 의원 등 일부 장외주자 등도 후보단일화 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후보단일화 시기는 대선 후보 선출을 마친 각 정당이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단일화에 대한 내외부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다음달 20일을 전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범여권의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선 1개월 전에 후보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범여권의 후보들도 대개 내달 20일 이전 후보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범여권의 이견이나 갈등이 불거질 경우, 후보단일화는 11월을 지나 12월께 이뤄질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12월 초순이 더 낫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후보단일화 방법으로는 지난 대선에서 효과를 발휘했던 여론조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후보단일화 대상이 많을 경우, 여론조사를 통한 컷-오프 방법이 도입될 수 있다. 여기에 대통합 민주신당의 국민경선 히트한 모바일 투표 방법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후보단일화 가능성**= 일단 정치권에서는 범여권의 후보단일화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범여권의 분열은 곧 한나라당의 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선 실패시 후보단일화를 거부한 정치 세력은 '대선 패배 책임론'의 후폭풍으로 추후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소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보단일화 성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후보단일화는 정당 간의 통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대선에서는 우군이지만 총선에서는 적군으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선 직전 범여권 대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제정파의 신뢰구조가 무너진 상태라는 점에서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범여권은 후보단일화 과정은 물론 막판 대선 과정에서도 기득권과 총선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과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후보단일화는 지역 정치권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대선 후보를 배출한 정당으로 민심의 균형추가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명흠 前 장흥부군수 신당 입당

"장흥군수 재선거 출마할 것"

이명흠 전 장흥부군수가 14일 대통합민주신당에 입당, 신당 후보로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장흥군수 재선거에 출마할 것임을 밝혔다.

이 전 부군수는 이날 광주시 동구 학동 신당 전남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합민주신당에 입당해 당의 후보로서 장흥군수 재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당초 무소속 출마를 고려했던 이 전 부군수는 그동안 신당내에서 출마 준비를 해온 김창남 전남도의회 부의장과 백광준 전 장흥군의회 의장에 대해 "두 분은 불출마의 결단을 내리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달 중 군수 후보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